나를 뛰어넘다 SmArt 동강대학
http://www.dkc.ac.kr 062-520-2552~5 SMART 동강대학

光州日報

인생60파워 정기예금 금리 5.32%
DAYOU 대유와 함께 빛이나는
스마트저축은행
www.smartbank.co.kr 대표전화 1577-3800

광주 20/26℃ 목포 19/25℃ 여수 20/24℃

단기 4344년 (음력 7월 24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9045호 1판 2011년 8월 23일 화요일

광주 도시재생 새 실험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살펴보니

골목길 온기 되살아나고 버려진 시장엔 미술공방

주민 주도 '참여형 사업'들 서서히 정착

#대표적인 북구의 쇠락 주택지역인 임동 대원시장은 2010년까지 폐쇄된 채 방치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이 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 젊은 미술가, 조각가들로 구성된 예술단이 시장에 입주하고 주변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주민센터는 대원시장 건물주로부터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뒷받침했고, 주민들은 이 공간만이 아니라 남는 화분으로 골목길을 가꾸는 등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비교적 고소득자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무지구와 달리 저소득 임대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상무2동에서는 '융화'를 주제로 동네를 바꿔나가고 있다. 주변 쌍학공원에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감안, 기술공방을 만들어 직업교육에 나서고 있다. 참여자는 아직 13명이지만 계속 문의가 쇄도해 프로그램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민선 5기 광주시가 도시재생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골목길을 꾸미고, 폐쇄된 시장을 미술공방이나 어린이 교육장으로 탈바꿈시킨 것은 물론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기술자 양성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지역마다 특색을 갖춘 '참여형 사업'들이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행정기관이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전문가·예술가 등을 연계시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도록 지원하고, 주민들은 아직 서툴지만 마을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의 일방통행식 추진으로 인한 주민 참여 미흡, 막대한 예산을 들인 시설 설치 후 관리·운영 부실,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원주민 이주 등 문제점이 드러난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민선 5기 핵심 도시재생사업으로 각 자치구에 1곳씩 모두 5개 동을 '행복한 창조마을사업 시범마을'로 선정해 각각 2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따로 정해진 항목 없이 예산을 각 주민센터에 배정해 동네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양방죽이 있었던 동구 계림동은 '추억이 깃든 경양마을'이라는 주제로 삼았다. 빈 집을 철거하고 경양방죽의 추억을 담은 사료관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옛 터만 남아있는 둑방길을 구간별로 나눠 주민들이 조사하는 작업도 실시하고 있다.

'희망을 노래하는 방젯골'의 남구 방림1동은 사랑방 운영, 문화골목길 조성, 학당 운영 등에 나서고 있으며, '자연과 역사를 가꾸는 박산마을'을 지향하는 광산구 어룡동은 마을생활사 박물관 조성, 문화재 보존, 생태연못 조성 등을 사업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한계도 있다. 구도심의 경우 주민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자이고 세입자 비율도 높아 주민 참여에 한계가 있는데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주거지나 그 주변에 대한 개선 없이는 일시적인 성과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벽화 등 외관 꾸미기에 치중할 경우 실제 주민의 삶과 괴리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문화나무 상상강좌' 제7탄 '지금은 아트페어 전성시대'

"아트페어는 미술 보고 즐기는 축제공간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미술시장 살린다"

- 표미선 한국화랑협회장·표 갤러리대표
- 25일(목요일) 오후 4시 빛고을시민문화관
- 문의 : 062-670-7423, 062-220-0651

光州日報社 · 광주문화재단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의 차남 사이프 알-이슬람이 생포됐다는 소식에 22일(현지시각) 반군이 점령한 벵가지에서 리비아인들이 환호하고 있다. 반군은 21일 새벽 '인어의 새벽 작전(Operation Mermaid Dawn)'을 전격 감행, 수도 트리폴리 함락 작전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5·18 세계기록유산 등재 내달 5일 결정서 전달식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결정서' 전달식이 다음달 5일 데이비스 헵번 유네스코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에서 열린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헵번 의장은 9월 5일 광주를 방문, 지난 5월 유네스코 사무국이 5·18 기록물의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결정한 문서를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전달한다.

세계기록 유산 등재 결정서 광주 전달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참석하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특사를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IAC(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총회를 광주에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IAC는 5·18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심사를 맡았던 실무기구다. 광주시는 또한 5·18 기록물의 세계유네스코 기록 유산 등재와 관련해 광주인권평화상 제정 여부를 올해 내 결정하기로 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리비아 카다피 정권 붕괴 초읽기

반군 "아들 2명 생포"…수도 트리폴리 대부분 장악

리비아 반군이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의 최후거점인 수도 트리폴리의 대부분을 장악하기 시작해 카다피 정권의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반군이 트리폴리로 진격한 것은 리비아 사태가 촉발된 지 반년 만에 처음으로 42년간 리비아 민중을 억압해 온 카다피 체제의 전복이 임박했음을 의미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아들 생포…트리폴리 함락 직전=21일(현지시간) 트리폴리에 입성한 반군은 자신들이 카다피의 관저인 바브 알-아지지야 요새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카다피의 근거지인 트리폴리의 함락이 임박했다고 말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수백 명의 반군은 카다피의 아들이 지휘하는 트리폴리 외곽의 정예부대를 손쉽게 격퇴하고 시민의 열렬한 환영 속에 트리폴리에 입성했다.

반군 측은 카다피의 차남인 사이프 알-이슬람과 3남인 알-사디를 생포했다면서 카다피 정권이 몇시간 내로 붕괴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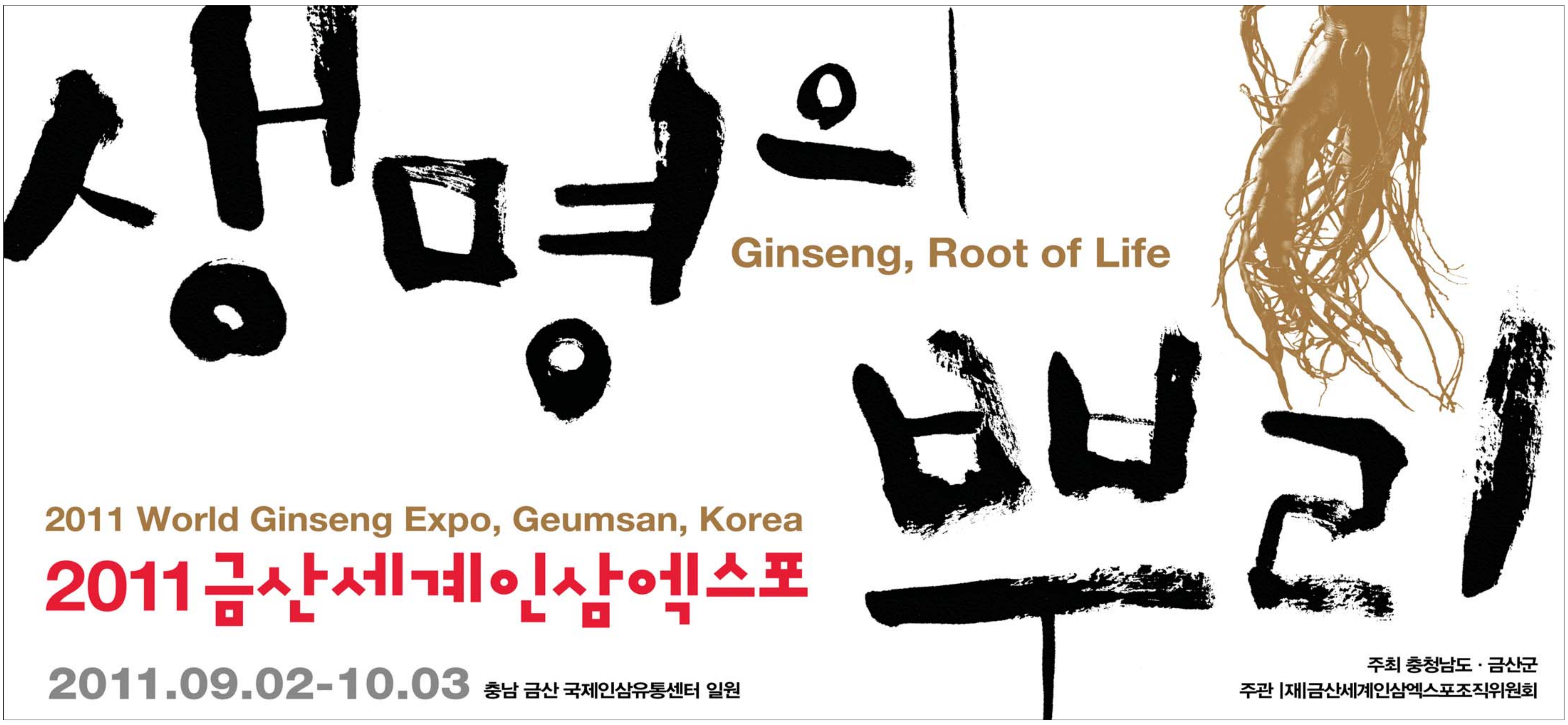
◇반군 녹색광장 장악, 환영 물결=반군들은 21일 밤부터 트리폴리 도심의 녹색광장도 장악했다. 알-자지라 TV 등은 반군들이 트리폴리 시민의 환영을 받으며 녹색광장에 진입했다고 현지 특파원을 인용해 보도했다.

반군과 시민들은 녹색광장에서 한데 어울려 손뼉을 치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으며 일부 시민은 카다피의 사진과 리비아 국기를 불태우기도 했다.

◇카다피 축출 최후의 결전 남아='인어공주(mermaid)'란 작전명 아래 트리폴리 입성에 성공한 반군은 이날부터 카다피 축출을 위한 최후의 결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나토의 공습 지원과 해상작전 등을 포함해 육해공 입체작전을 펼쳐온 반군은 조만간 카다피 관저인 바브 알-아지지야 요새로의 진격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카다피는 여전히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히면서 투항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카다피는 리비아 국영TV가 21일 밤(현지시각) 방송한 녹음연설에서 "우리는 결코 트리폴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사항전해 신의 은총으로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방 각국도 카다피 정권의 붕괴가 머지않았다고 판단하고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가정폭력상담원"
■ 교육일시 : 2011년 9월 20일(화)~
※매주 화, 목 18:00 ~ (총100시간)
☎062)605-1112, 1063
■ 접수기간 : 9월 9일(금) 까지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